

정읍 농민에 농기계 빌려드립니다

소성면 서부 임대사업소 개소
농기계 43종 166대 갖춰
연말까지 임대료 50% 감면
본소·북부 등 총 5개소 운영



서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식. 정읍시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과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성면 서부 임대사업소 개소식이 열렸다. <정읍시 제공>

“농사일 참 편해졌어요.” 정읍시가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정읍시는 서부지역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소성면에 서부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가 4일 밝혔다. 지난 29일 열린 개소식에는 이학수 시장, 정읍시의회 의원, 농업관련 단체장을 비롯한 농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정읍시에는 본소(정우면), 북부(신태인읍), 서남권(소성면), 동부(웅동면), 서부(영원면) 등 총 5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구축해 농업인들이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농기계를 빌릴 수 있게 됐다.

서부사업소는 총사업비 23억원(국비 6억원, 시비 17억원)을 투입해 5990㎡ 부지에 보관창고 포함 연면적 727㎡ 규모로 임대용 농기계 43종 166대를 갖췄다.

서부사업소 개소로 서부지역 농업인들이 가까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농업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시는 몇 년간 지속된 경제활동 위축과 농업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

계 임대료 50% 감면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서부 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 5개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구축하게 됐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운영되는 임대사업소인 만큼 수요가 많은 기종을 중심으로 농기계를 구입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의 현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 교육·홍보 필요”

정읍시의회 본회의...서향경 시의원, 시 차원 대응 촉구



서향경 시의원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이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 석면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의회는 서 의원이 지난 26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석면 유해성과 석면 슬레이트 철거지원 교육 및 홍보 ▲조경석 등에 대한 석면 검사 ▲석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공개 등을 질문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서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호와 관련해 조경석과 토양 등에 대한 시의 검사와 용역실적을 살펴봤지만, 정읍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 현황 3개년(2020-2022) 자료 등 어디에서도 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정읍시는 2013년도와 2021년에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다며,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

구관리 시스템을 살펴봤지만 이러한 중요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찾을 수 없었다며 비공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학수 시장은 “2013년도는 자체조사, 2021년도는 용역비가 아닌 민간위탁 비용 추진했기에 공개 의무가 없다”며 “추후 자료를 요청하면 제공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서향경 의원은 “시는 모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 노출 빈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석면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고, 석면 업무 전담 담당자가 관련 사항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대강면, 생생마을만들기 ‘최우수’

행복나무협동조합 구성 ‘성과’

남원시 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전북도 주최 ‘제10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농촌만들기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사람 찾는 농촌’ 구현을 위한 생생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대회로, 지난 2014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고 있다.

콘테스트는 소득·체면, 문화·복지, 경관·환경 분야의 ‘마을만들기’와 농촌 복합서비스 거점조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농촌형 교통모델, 주거 개선,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사례 분야의 ‘농촌만들기’로 평가가 이뤄진다.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2개팀은 농식품부 주관 콘테스트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농촌만들기 우수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강면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대강면행복문화센터와 꽃강구정원 조성 등의 사



업을 마무리했다.

이후 대강면행복나무협동조합을 구성해 시설유지와 운영,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 기획, 배후 마을간의 서비스 연계전략 발굴 등의 활동을 펼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수상으로 대강면 농촌중심지는 오는 9월 6일 열리는 농식품부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얻었다. 이에 따른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는 이달 중순께 예정돼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군, 상반기 지방세 징수 2년 연속 ‘대상’

징수율 95.1%...10년간 우수기관

올 받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해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들에게는 체납세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부동산 및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쳤다.

기호민 고창군 재무과장은 “군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과 지방세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세무행정 추진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군이 전북도에서 실시한 2023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지방세 징수율(95.1%) 및 세수 신장률, 체납차량 변호단 영치 실적, 공매 실적 등 8개 평가 항목을 합산한 종합 평가에서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2600만원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최근 10년 동안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총 시상금(도비) 5억1500만원

‘온라인 고창군민’이 되어주세요

관계인구 늘리기 ‘사이버군민증’ 발급...가맹점 할인 혜택

고창군이 지역 인구 유입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이버고창군민제도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이버고창군민증’은 고창군에 관심있는 누구나 사이버고창군민홈페이지에서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고창과 인연을 맺는 관계인구의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창신활력산업단지 제1호 MOU체결 기업인 ㈜지텍 김하준 대표가 제1호 사이버고창군민으로 참여하며 훈훈한 관계가 이어갔다. 지텍은 경기도 화성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통신소자형 반도체 관련 제조업체인 중견기업이다.

사이버고창군민 혜택을 받으려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고창군민증을 발급받고, 사이버고창가맹점 이용시 신분증과 온라인 사이버고창군민증을 함

께 보여주면 된다.

가맹점 혜택으로는 힐링카운터 약 25%할인, 석정휴스파 25%할인, 동호국민여가캠핑장 20%할인, 토크발효 복분자·코디얼 체험 10%할인 등이 있으며, 민간 할인가맹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가맹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미래전략팀에 신청하면 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사이버고창군민증 발급을 계기로 고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창을 찾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고창군민증 가맹점 모집에 관내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 취약계층 주택 보일러 시설 무상점검

170가구 대상 ‘에너지 홈닥터’ 추진...수리수선·부품교체 등

남원시가 잇따라 발생하는 보일러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난방시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취약계층 170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 홈닥터 사업’을 추진한다 4일 밝혔다.

‘에너지 홈닥터’ 사업은 취약계층과 노후 주거 환경 거주자의 보일러 등 난방 시설을 점검하고 각

상태에 따라 수리수선·부품교체·배관청소 등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지원 기준액은 6만6000원이다. 가구별로 보일러 상태가 다른 만큼 기준액 이상의 지원도 가능하다.

사업 대상은 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자, 독거노인, 장애인 세대 등 취약계층과 보일러 사용 환경이 열악한 산간·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다. 다만, 전년도에 이미 해당 사업을 통해 보일러 점검을 받은 가구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문의는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11월까지 점검 업체가 신청 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난방시설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보일러 사고는 인명 피해를 이어지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보일러 사용 전 점검을 생활화해 보일러 사고 예방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4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9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